

'강남스타일', 빌보드 선정 '21세기 뮤직비디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의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사진)가 미국 빌보드지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에 이름을 올렸다.



PSY - GANGNAM STYLE(강남스타일) M/V ▲
조회수 3,000,023,948회

'강남스타일'은 최근 빌보드가 발표한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에서 아시아 가수 중 가장 높은 12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풍자적 댄스곡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폭풍처럼 휩쓸며 최초로 유튜브 조회 수 10억 뷰를 넘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며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켜 세계가 한국 음악에 눈을 돌리게 했다.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는 아니지만 '강남스타일'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 1위는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 (Bad Romance)다 차지했다.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100위권 안에 이름

을 올린 것은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67위), 소녀시대의 '지(Gee, 92위)였다.

2012년 발표된 '강남스타일'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간 2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시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 2일 현재 31억 뷰를 넘어섰다.

윤형주, 역대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윤형주(71, 사진) 씨가 부동산개발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1억 원에 달하는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으로 지난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윤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배임액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 안성의 한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 원 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인으로 5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명예를 걸고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찾아오면 팬클럽 강제탈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인 배우 장근석(31, 사진)이 자신을 찾아오는 팬들에게 "적발될 경우 팬클럽 탈퇴 조치까지 내리겠다"며 경고했다.

1일 장근석 소속사는 "장근석 출근길이나 퇴근길을 보고 싶다는 명목으로 길에서 있거나 건물 근처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경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어기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적발해 팬클럽 강제탈퇴 및 향후 공연장 출입 금지 등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장근석의 근무지는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곳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을 만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장근석의 그 곳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팬들의 불필요한 방문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그곳 근무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장근석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입대해 장근석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을 마치고 최근 근무지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배정받았다.

1223호 숫자퍼즐 정답								
5	6	8	4	7	9	1	2	3
7	9	2	3	5	1	4	8	6
1	3	4	6	2	8	9	7	5
3	7	6	8	9	2	5	1	4
8	4	1	5	3	7	6	9	2
9	2	5	1	6	4	8	3	7
6	5	9	7	8	3	2	4	1
2	1	3	9	4	6	7	5	8
4	8	7	2	1	5	3	6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도박꾼 인연을 만난 중년 남성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을 해로할 수 있는 것도 배우자 복(福)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래 전에 50대의 중년 남성과 필자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의 팔자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젊은 시절에 한 세월 공직이나 경찰, 군인과 같은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했었을 것이나 이제는 남의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운로가 되고, 배우자 인연에도 애로가 따르는 운로(運路)입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 신사분이 약간 놀라는 눈빛으로 필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젊어서 한국에 있을 때 경찰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미국에 와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첫 부인과는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헤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난 집사람하고는 정말로 잘 살았는데 약 5년 전에 그만 사별(死別)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건넨 이야기는 "아마도 그 부인 덕을 어느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처갓집이 매우 부자였고 사별한 처도 전문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처와 사별한 후에 지금까지 혼자 지내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하고 다시 재혼을 해도 되겠는지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상대 여자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이 여자의 사주를 볼 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고 나서 필자가 그 분에 대한 것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 신사분이 필자를 다시 찾아온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원장님 말씀대로 조심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완전히 도박꾼입니다."라고 한숨을 내쉬며 한탄을 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